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Child Poverty and Anti-poverty Measures in Korea*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장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 증가 등은 아동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으로 구분한 후 빈곤수준별 아동인구 규모를 추정하였고 아동가구의 가구주 성, 학력, 가구유형, 아동 및 가족수 등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본 후,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비교하였다.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1998년 8.0%에서 2002년에는 4.4%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4.8%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1998년 10.8%에서 2006년에는 10.6%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545,193명(도시: 523,38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915,925명(도시: 1,155,810명)으로 추정된다. 탈아동빈곤정책으로 공적이전소득 증액, 아동수당제도 도입, 기혼여성 취업장려,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 1. 서론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많은 사회에 편재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아동빈곤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 부족에서 파생된 과거의 아동빈곤과는 달리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up>1)</sup>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 부양자 가구를 전제한 사회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2인생계 부양자 가구를 모델로 한 정책의 변환, 즉 복지

1) Vleminckx, Koen and Smeeding, Timothy,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in Koen Vleminckx, and Timothy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What do we know?*, Bristol: Policy Press, 2003, pp.527~546.

2)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를 Taylor-Gooby(2007)는 '신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라고 명명하였다.

국가의 재편을 요구한다.

선진 국가들은 과거에는 남성에 대한 소득보전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이었다면, 현재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의 복지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sup>3)</sup> 한국은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함께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빈곤은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 문제 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 문제로 접근해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아동빈곤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이고, 후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sup>4)</sup> 소득지원은 전통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세제 지원 등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통해서 가족이 고정 수입을 가짐으로 탈빈곤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을 혼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동빈곤 축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아동은 미래의 시민노동자이므로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동에 대해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sup>5)</sup>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빈곤한 아동은 학업중퇴, 10대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의 가능성이 많다.<sup>6)</sup> 더구나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sup>7)</sup> 빈곤한 아동은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

리적 박탈 등을 경험하게 된다.<sup>8)</sup>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어 돌보아 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고,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비행청소년화 할 위험성도 높다.<sup>9)</sup>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 증가 등은 아동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지수준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한 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아동빈곤의 확대 및 심화는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이슈화하여 빈곤규모 추정, 실태 파악, 관련요인,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잠재빈곤아동 가구의 빈곤취약성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적절한 정책 구상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적인 급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 연구는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미흡 및 아동의 범위

의 부정확으로 공식적인 아동빈곤율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사회 환경이 건강하게 조성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으로 구분한 후 빈곤수준별 아동인구 규모를 추정하였고 아동가구의 가구주 성, 학력, 가구유형, 아동 및 가족수 등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본 후,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비교하였다. 아동빈곤의 특성을 기반으로 빈곤아동가구가 탈빈곤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 2.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 1) 아동빈곤의 개념과 소득유형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아동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빈곤할 확률이 높는데, 이를 학계에서는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라고 명명하였다.

3) 윤홍식,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7년 2월 15일.

4) Whiteford, Peter, and Adema, Willem,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007.

5)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7.

6) Buchel, F., Joakim, F., Krause, P., & Wagner, G., "Impact of poverty on children's school attendance: Evidence from West Germany." in K. Vleminckx & T. M.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2003*, pp. 151~174. Bristol, U.K.: The Policy Press, Children's Defense Fund,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05.

7)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5), 7-29; Crosson-Tower, C. (2001). Exploring Child Welfare: A Practice Perspective.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Gregg, P., & Machin, S., Childhood experi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dult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K. Vleminckx, K. and T. M.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pp. 129-150). Bristol, U.K.: The Policy Press, 2003.; Esping-Andersen, Gosta,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 Korenman, S., Miller, J., & Sjaastad, J.,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1995, 127~155.

9) Esping-Andersen, 2002, 전제서.

어떠한 아동(혹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빈곤한 아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나? 빈곤이란 소득의 부족, 낮은 지출 수준, 열악한 주거, 낮은 수준의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 수준을 말한다.<sup>10)</sup> 빈곤한 아동은 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과 같은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한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입, income)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의 지출(consumption)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sup>11)</sup> 소득은 가족이 사용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은 가구의 소비자 저축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sup>12)</sup> 반면, 아동빈곤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가정을 판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함정은 있는데,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식 및 비공식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계절적인 소비 성향 등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탈빈곤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적이전소득이나 세제혜택 등의 소득지원을 통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

곤을 측정하는 것이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3)</sup>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 아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소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OECD 국가의 소득구분이 차이가 난다.<sup>14)</sup> 여기서는 OECD에서 구분한 소득분류를 사용하였다. OECD에서는 소득을 1차소득(Primary Income),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나눈다. 1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말한다. 1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기업연금 및 개인 간 이전소득, 예를 들면 부양금, 양육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을 포함한 것이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을 포함한 것이 총소득(Gross Income)이다. OECD 국가에서 분류한 총소득은 우리나라의 경상소득과 일치한다.

한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이다. 빈곤 연구시 OECD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을 많이 사용한다.<sup>15)</sup> 가처분소득은 국제

비교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동빈곤율의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빈곤율 측정시 OECD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기로 한다. 경상소득(총소득)은 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대칭된다는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sup>16)</sup> 여기서는 절대빈곤율을 측정할 때는 최저생계비 추정의 기준이 된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 2) 아동빈곤의 유형: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일반빈곤과 마찬가지로 아동빈곤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뉜다. 둘 다 일정한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한다. 절대빈곤이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한다<sup>17)</sup>. 이는 한 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액수(Dollars)로 표현된다.<sup>18)</sup> 최근 학계에서는 빈곤선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하여 빈곤정책을 효과를 보다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아동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상대빈곤이란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9)</sup>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빈민이란 '자원(물질, 문화, 사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가족,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0)</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빈곤을 측정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는 데 있다. 상대빈곤선도 절대빈곤선과 마찬가지로 소득(Income)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 제도로 인해서 절대빈곤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보다는 상대빈곤에 주목하여 빈곤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문제를 진단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상대빈곤선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OECD 등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선이다.

본고에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동시에 사용하여 아동빈곤율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용한 빈곤선은 정책 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OECD, LIS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40%, 50%, 60%를 사용한다. 특히 상대빈곤율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빈곤의 통태적 특성을 살펴보

10) Forster, M., & d'Erocole, M.,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DELSA/ELSA/WD/SEM(2005)1., 2005.

11) Bradbury, B., & Jantti, M.,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in Bruce Bradbury, Stephen P. Jenkins, and John Micklewright(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62~91.

12) 상동.

13) Solera, C, "Income transfers and support for mothers' employment: the link to family poverty risks," in K. Vleminckx, & T. M.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pp. 459-484). Bristol, U.K.: The Policy Press, 2003.

14) 박찬용 · 강석훈 · 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5)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6) 김미곤 · 김태완,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발표논문, 2004.

17) 미국에서 절대빈곤의 개념은 1960년대 Kennedy와 Johnson 행정내각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대(Vleminckx and Smeeding, 2003, 전제서).

18) Vleminckx and Smeeding, 2003, 전제서.

19) 여유진 외, 2005, 전제서.

20) Vleminckx and Smeeding, 2003, 전제서.

고자 하였다. 상대빈곤율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방법은 OECD, LIS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가구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자료로는 1998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9년간의 아동빈곤율을 추계하기 위해서 도시가계조사 데이터(1998~2002년)와 전국가계조사 데이터(2003~2006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아동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활용하였다. 빈곤의 분석단위로는 가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 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 1) 절대 및 상대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전체빈곤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였고 다시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의 빈곤율은 7.4%이었고, 2002년에는 4.1%이었다. 2006년 현재 전체 가구 절대빈곤율은 도시의 경우는 5.0%이고 전국은 5.3%에 이른다. 즉, 농어촌 지역을 포함시킨 전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높아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1998년 8.0%에서 2002년에는 4.4%로 감소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7.4%)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전국의 경우도 2003년 5.9%에서 2006년에는 5.0%로 다소 하강한 추세이다. 아동빈곤율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의 빈곤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농어촌 아동이 빈곤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음을 시사한다.

비아동가구 빈곤율과 아동가구 빈곤율을 비교했을 때, 2002년 이전까지는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비아동가구에 비해서 약간 더 높았는데, 2003년을 기점으로 비아동가구 빈곤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변화가 아동

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아동가구 중 노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빈곤율 상승에 기인 한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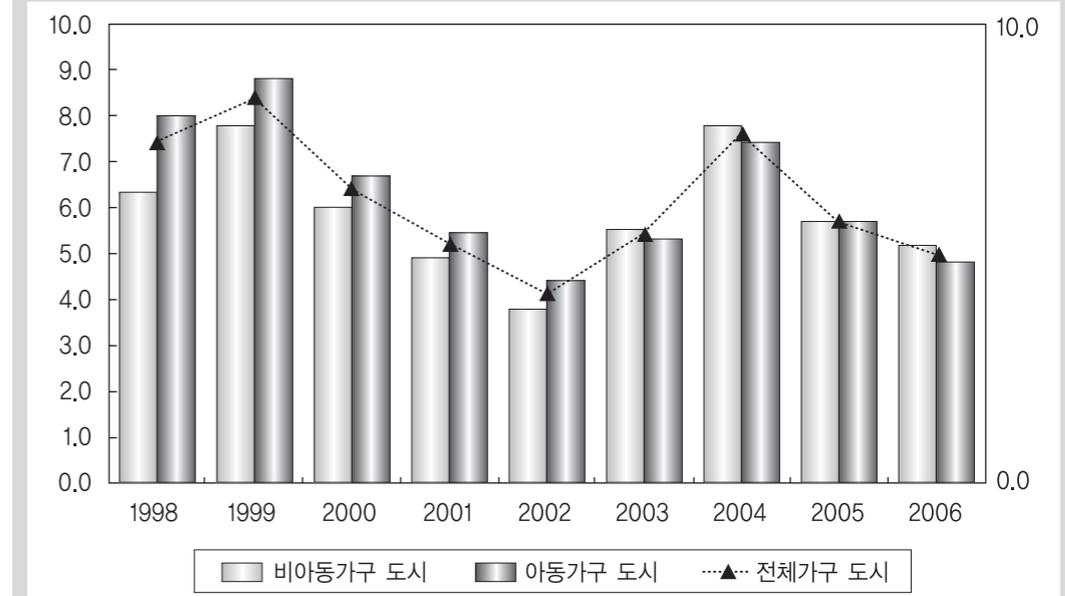
도시지역 상대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40%, 50%, 60%의 분포를 보면, 1998년에서 2002년에는 6.1%→4.6%, 10.8%→9.7%, 17.2%→17.0%로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다가 절대빈곤율과 마찬가지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중위소득 40%, 50%, 60%의 비율은 6.0%→5.9%, 10.4%→10.6%, 16.7%→17.0%로 약간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반면, 전국의 경우는 2003년에 비해 그 이후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 도시

표 1. 전체가구 및 아동가구의 빈곤율(1998~2006년, 자영자 제외)

연도	대상가구별 절대빈곤율						아동가구 상대빈곤율					
	전체가구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1998	7.4	-	6.3	-	8.0	-	6.1	-	10.8	-	17.2	-
1999	8.4	-	7.8	-	8.8	-	6.2	-	10.6	-	17.1	-
2000	6.4	-	6.0	-	6.7	-	5.2	-	9.8	-	16.7	-
2001	5.2	-	4.9	-	5.4	-	5.0	-	9.9	-	17.0	-
2002	4.1	-	3.8	-	4.4	-	4.6	-	9.7	-	17.0	-
2003	5.4	6.0	5.5	6.2	5.3	5.9	6.0	6.7	10.4	11.4	16.7	18.1
2004	7.6	8.3	7.8	8.8	7.4	8.5	6.3	7.1	10.8	11.8	17.0	18.4
2005	5.7	6.2	5.7	6.4	5.7	6.1	6.3	5.5	10.9	8.8	17.6	14.1
2006	5.0	5.3	5.2	5.9	4.8	5.0	5.9	4.9	10.6	8.4	17.0	13.9

주: 1) 도시가계데이터 자료 특성상 1998~2002년도는 근로자가구만 분석하고 2003~2006년도는 전가구를 모두 분석함.  
 2) 1998~2002년 근로자가구(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영업자 제외)  
 3) 2003~2006년 전가구(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1. 아동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도시지역, 자영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양한 탈빈곤 정책이 빈곤을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향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빈곤아동의 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의 경우 절대빈곤아동수는 545,193명(도시: 523,38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915,925명(도시: 1,155,810명)으로 추정된다. 단, 본 추정은 자료의 한계상 자영업자를 제외한 추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빈곤아동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절대빈곤아동수는 전국이 더 많은 반면, 상대빈곤아동수는 도시지역이 더 많았다. 이는 농어촌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음을 시사한다.

## 2)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어떠한 아동가구가 빈곤한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유형,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직업, 아동수 및 가족수별 아동빈곤율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우선,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추이를 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모자가구, 일반가구, 맞벌이가구의 순이었다. 특히 노인가구는 조손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조손가구의 빈이 빈곤함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빈곤율이 매우 낮아서 OECD에서 주장하듯이 2인생계부양자 가구에서 아동빈곤이 확연하게 줄어들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모자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편으로 이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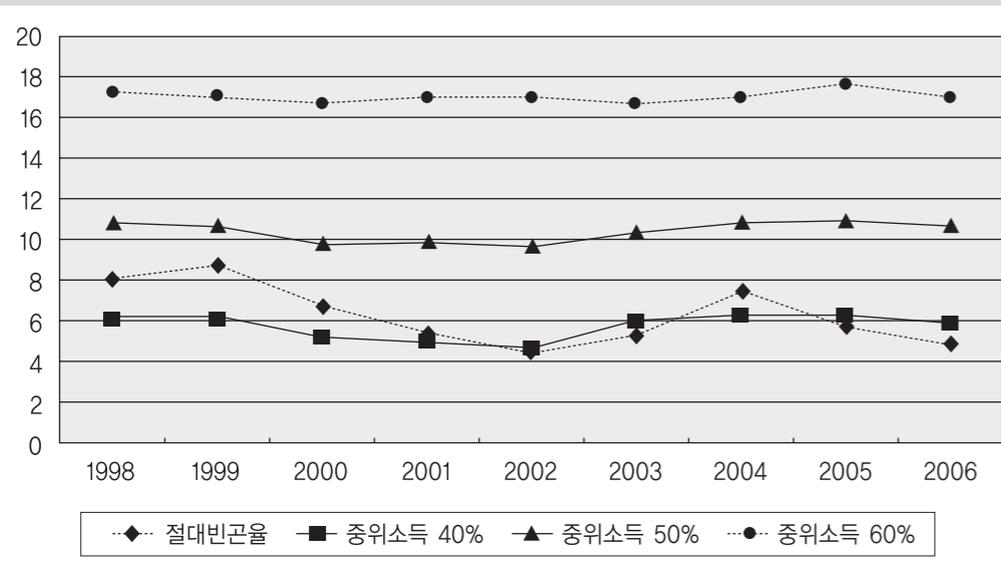
표 2. 빈곤아동수 추이(1998~2006년, 자영자 제외)

(단위: %, 명)

년도	전체아동수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아동 빈곤율	추정아동수	상대아동 빈곤율	추정아동수				
1998	12,550,763	8.0	1,004,061	10.8	1,355,482				
1999	12,303,275	8.8	1,082,688	10.6	1,304,147				
2000	12,077,392	6.7	809,185	9.8	1,183,584				
2001	11,872,394	5.4	641,109	9.9	1,175,367				
2002	11,665,981	4.4	513,303	9.7	1,131,600				
2003	11,478,537	5.3	608,362	5.9	677,234	10.4	11.4	1,193,768	1,308,553
2004	11,297,516	7.4	836,016	8.5	960,289	10.8	11.8	1,220,132	1,333,107
2005	11,105,069	5.7	632,989	6.1	677,409	10.9	8.8	1,210,453	977,246
2006	10,903,869	4.8	523,386	5.0	545,193	10.6	8.4	1,155,810	915,925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비음영부분은 도시, 음영부분은 전국임.

그림 2. 아동가구의 절대 및 상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도시지역, 자영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의 질과 비용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 및 저학력의 저소득 여성을 위한 취업기회가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자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구주 성별 아동빈곤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남성가구주의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의 경우 도시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3.2%, 3.3%인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17.8, 18.8%로 남성가구주의 약 5.6~5.7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대부분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되어 여성가장에 대한 취업 및 보육지원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저학력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졸이하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초대졸, 고졸, 중졸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세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인적자본 투자는 공교육 뿐 아니라 학력수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교육에도 지원되어야 한다. 즉, 빈곤에 대한 지원이 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에만 머무는 한, 빈곤의 세습은 끊어질 수 없고 아동빈곤도 또한 해결될 수 없다.

가구주 직업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직업유형은 임시 및 일용노무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영업이었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은 사무직,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즉, 고용이 안정될수록, 사무직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영업자의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에는 전문직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영세소상인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군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구의 아동수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자녀

가구의 아동수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자녀

표 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아동빈곤율(자영자 제외, 단 직업의 경우는 포함시킴)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가구유형	노인가구	20.8	42.9	50.0	24.4	53.5	64.0	100.0	80.1	67.8	
	모자가구	15.4	19.6	12.6	12.0	13.4	16.3	30.0	14.9	16.1	
	맞벌이가구	3.1	4.3	2.8	2.3	1.6	1.9	2.4	2.8	1.6	
	일반가구		9.9	10.4	8.0	6.6	5.1	6.2	8.3	6.6	5.4
								7.2	9.0	7.2	5.6
가구주성	남자	6.8	6.9	5.1	4.1	3.0	3.8	4.7	4.1	3.2	
	여자	22.1	25.9	18.7	15.4	14.5	15.4	32.1	19.3	17.8	
가구주교육수준	초등졸이하	22.5	25.9	19.2	11.6	10.4	13.9	32.8	20.8	13.0	
	중졸		15.8	18.0	14.9	9.0	10.1	14.8	34.3	21.8	19.1
								9.5	22.6	19.6	16.8
	고졸		8.7	9.5	7.3	5.7	5.3	11.4	24.7	19.6	17.7
								6.6	9.3	7.6	6.2
초대졸		4.7	4.7	5.9	2.7	1.7	6.7	10.0	8.1	6.1	
							3.1	3.6	3.0	2.5	
							3.2	3.6	3.4	2.5	
대졸이상		2.3	3.0	1.6	1.7	1.9	1.5	3.0	1.9	2.1	
							2.1	3.2	1.9	2.0	

〈표 3〉 계속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주직업	공무원	0.4	0.6	0.3	0.3	0.2	0.2	0.0	0.1	0.2	
	사무직						0.2	0.1	0.1	0.2	
			2.8	3.3	2.1	2.5	2.7	2.1	3.5	2.3	2.0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7	3.7	2.4	2.0
			9.5	10.1	7.9	6.3	5.2	4.9	4.6	6.3	5.6
자영업자							5.7	5.0	6.8	5.8	
							18.0	22.9	22.9	18.5	
							19.4	25.9	24.3	19.7	
아동수	1명						13.6	23.6	13.5	13.7	
			7.2	7.3	5.9	4.7	3.9	14.8	24.0	14.7	14.4
	2명							4.9	7.5	4.9	4.2
			8.1	8.9	7.0	5.5	4.5	5.4	8.0	5.3	4.3
	3명							6.3	7.2	6.2	5.5
			10.8	14.7	8.7	10.0	6.1	7.2	7.9	6.5	5.5
	4명							8.4	14.0	15.5	6.6
			20.0	25.3	6.3	3.8	8.3	9.2	18.7	17.0	9.2
	5명							4.2	9.9	31.6	34.4
			-	30.0	66.7	-	-	10.1	9.4	27.8	24.5
							-	-	67.6	-	
							-	-	67.6	-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수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아동수가 4명인 경우의 빈곤율은 매우 높았다. 즉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다자녀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아, 다자녀 출산이 가족에게는 커다란 비용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한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아동빈곤을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세계적 수준에서의 아동빈곤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 보았다. LIS 자료에서는 2000년도 각국의 아동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빈곤율을 측정하였다. 가구유형도 양부모가족, 모자가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빈곤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LIS에

제출된 데이터가 없어서 도시가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농어촌이나 자영업자가 데이터에 누락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낮게 추정되었음을 고려하면서 비교해야 한다.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26.9%이고, 그 다음은 미국으로 21.9%를 보인다. 이어서 영국 17.0%, 이태리 16.6%, 스페인 16.0%, 아일랜드 15.8%, 캐나다 15.5%, 호주 14.9% 등 주로 앵글로 색슨국가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높았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2.7%, 핀란드 2.8%, 노르웨이 3.4%, 스웨덴 4.2%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간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대륙의 조합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 7.8%, 프랑스 7.9%, 독일 9.0%, 룩셈부르크 9.1% 등이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및 가족)에 대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영미 국가에서도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국가도 있기는 하지만, 극빈층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아동의 인지능력을 제고시키는 공보육 비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공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관대한 편이다. 대륙국가들은 양자의 중간으로

아동수당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탈아동빈곤율의 단초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국가의 아동빈곤율의 추이가 분명하게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빈곤율이 9.8%로 대륙형 국가군의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잔여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료는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농어촌 가구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국민생활실태조사(농어촌 가구 포함)를 기초로 한 아동빈곤율 추정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14.9%이었다.<sup>21)</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영미권 국가의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빈곤율을 저하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가구 유형별로 아동빈곤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은 아동과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의 위험성은 아동빈곤율의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양부모 가족의 빈곤율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덴마크 2.0% vs 6.1% 많게는 13배까지(네덜란드 2.9% vs 37.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8.8%이고(전체 가구 평균: 11.2%)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27.7%로 3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모자가족의 빈곤율이 약 4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빈곤율이 낮은 노르딕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의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책은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가족의 여성 가구주가 아동양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안

표 4.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 50% 이하) 비교(2000년 기준)

(단위: %)

아동빈곤율 수준	국가	아동빈곤율	양부모가족 아동빈곤율	모자가족 아동빈곤율
저빈곤율 국가: 7% 미만	덴마크(2000)	2.7	2.0	6.1
	핀란드(2000)	2.8	2.1	8.1
	노르웨이(2000)	3.4	2.1	10.9
	스웨덴(2000)	4.2	2.3	12.9
	네덜란드(1999)	6.3	2.9	37.2
	벨기에(2000)	6.7	5.4	-
중빈곤율 국가: 7~10% 미만	오스트리아(2000)	7.8	5.8	21.4
	프랑스(2000)	7.9	5.1	28.8
	스위스(2000)	8.9	8.0	22.3
	독일(2000)	9.0	3.8	30.5
	룩셈부르크(2000)	9.1	7.7	29.1
	한국(2000)	9.8	9.2	23.2
고빈곤율 국가: 10~20% 미만	그리스(2000)	12.7	11.7	33.4
	호주(2001)	14.9	10.0	35.2
	캐나다(2000)	15.5	11.2	42.3
	아일랜드(2000)	15.8	11.0	46.8
	스페인(2000)	16.0	14.6	32.8
	이태리(2000)	16.6	16.4	19.0
	영국(1999)	17.0	10.4	39.2
최고빈곤율 국가: 20% 이상	미국(2000)	21.9	14.8	49.5
	멕시코(2000)	26.9	27.3	24.5
평균		11.2	8.8	27.7

주: 한국의 경우는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한국의 빈곤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자료: LIS database, 2007.

21) 김미숙,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14호, 2005, pp.78~90.

심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 및 방과후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어야 하겠고, 고용이 안정되고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이 23.2%로 양부모가구 9.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고, 외국의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이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탈아동빈곤을 위한 정책과제

세계적으로 아동빈곤은 최근의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인구고령화 시대에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노동자)이므로 아동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탈빈곤은 주요 정책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다만, 최근 신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이다. 아동빈곤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노인이나 전체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다자녀 가구, 모자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등은 아동빈곤율이 높고 저학력과 불안정한 취업까지 겹쳐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아동에 대한 탈빈곤정책으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고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확대되거나 새롭게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1) 공적이전소득 증액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부조이다. 가계조사에서는 공공부조의 지원으로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보장수혜를 포함시켜서 매년의 공적이전소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적이전소득은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의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때 아동빈곤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2002년의 경우 규모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면에서는 모든 년도에 있어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2배에서 5배 가량이나 더 많았다. 다만, 두 유형의 이전소득의 격차는 최근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림 3]은 공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아동빈곤율의 감소효과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총 이전소득의 효과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이 높았다. 1998년 총 이전소득의 감소효과는 12.7%이고 이 중 공적이전소득은 1.3%, 사적이전소득은 11.4%의 빈곤감소효과를 보여 총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중 사적이전의 비중이 89.8%를 차지하다가, 2006년에는 52.6%로 30% 이상 감소하였다(표는 제

표 5. 아동가구의 소득 및 이전소득(자영업자 제외)

(단위: 원)

년도 및 지역	1차소득 (A)	공적이전소득 (B)	사적이전소득 (C)	공적 vs 사적이전소득 비율(C/B)	총이전소득 (D=B+C)	총가구소득 (A+D)	아동 빈곤율	
1998 도시	1,971,285	7,320	38,000	5.2	45,410	2,016,605	8.0	
1999 도시	2,046,671	8,458	47,622	5.6	56,108	2,102,779	8.8	
2000 도시	2,173,779	7,513	41,736	5.6	49,250	2,223,028	6.7	
2001 도시	2,415,955	12,606	40,621	3.2	53,228	2,469,183	5.4	
2002 도시	2,548,587	23,248	54,228	2.3	77,576	2,626,164	4.4	
2003	도시	2,805,357	11,795	47,857	4.1	59,652	2,865,009	5.3
	전국	2,755,390	13,396	47,450	3.5	60,847	2,816,237	5.9
2004	도시	2,950,737	17,696	74,139	4.2	91,836	3,042,573	7.4
	전국	2,977,761	26,520	79,119	3.0	105,639	3,083,400	8.5
2005	도시	3,036,800	27,829	88,234	3.2	116,064	3,152,864	5.7
	전국	2,999,559	29,388	86,036	2.9	115,424	3,114,983	6.1
2006	도시	3,218,544	32,046	81,934	2.6	113,980	3,332,524	4.8
	전국	3,182,656	33,416	82,714	2.5	116,130	3,298,786	5.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시하지 않음).

그럼에도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직간접 현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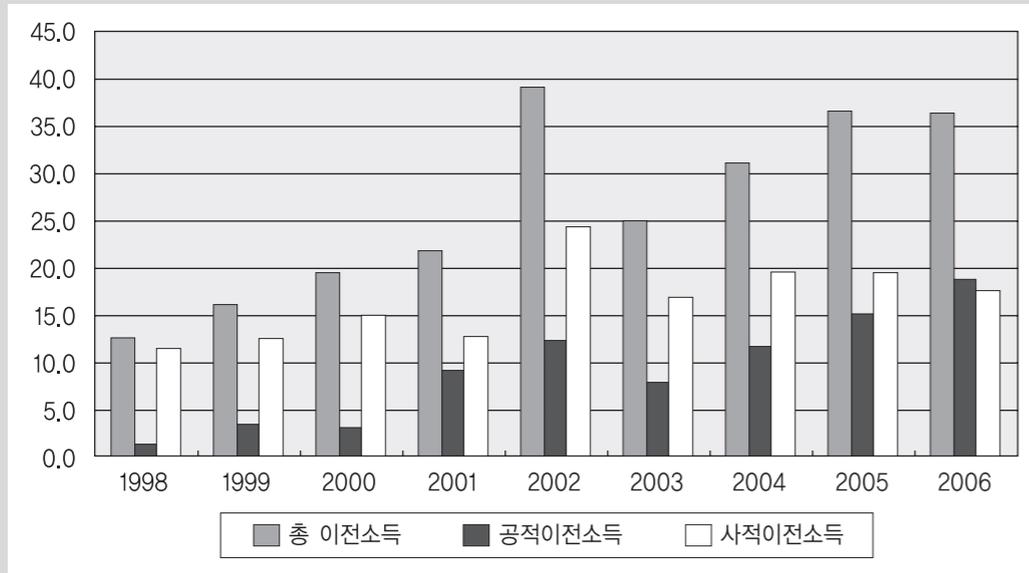
##### 2)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양육비

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소득보충적 보편적인 현금급여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88개국 이상이 도입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수당 급여수준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8.5% 정도 된다.<sup>22)</sup> 우리나라의 2006년 현재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처분(중위) 소득은 1,343,390원이다. 이 소득에 OECD 아동수당 급여 평균인 8.5%를 곱하면 약 11만 4천원 정도가 된다. 이를 만단위 이하를 절삭하여 10만원으로 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22) 김수정, 「아동수당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그림 3.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아동빈곤을 감소효과 (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할 경우 절대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상대아동빈곤율은 8.4%에서 4.8%로 절대아동빈곤율보다 더 많은 43%가 감소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연 13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6 참조).

아동수당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규모에 있다. 연간 13조나 되는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되면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투자로 해석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보다 활발한 논의와 공적 토론을 통해서 아동수

당을 도입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혼여성 취업 장려

앞의 <표 4>에서도 제시되었듯이 OECD 국가 내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 특히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2~6배 이상이나 되고 있었다. 아울러 가족내 생계부양자 수와 아동빈곤율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2인생계부양자 가족에서는 일인생계부양자 가족보다 아동빈곤율이 4분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3)</sup> 즉,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

23) Forster and d' Ercole, 2005, 전게서.

표 6.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 도입시 연간 소요예산(2006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령	인원 (명)	각 연령별 지원시 소요예산	6세미만 지원시 연간 소요예산	12세 미만 지원시 소요예산	18세 미만 지원시 소요예산
0세	442,831	531,397	대상아동수: 2,980,232	대상아동수: 6,903,004	대상아동수: 10,903,869
1세	450,503	540,604			
2세	477,116	572,539			
3세	491,176	589,411	소요예산: 3,576,278	소요예산: 8,283,605	소요예산: 13,084,643
4세	528,586	634,303			
5세	590,020	708,024	대상아동수: 10,903,869	소요예산: 13,084,643	소요예산: 13,084,643
6세	620,543	744,652			
7세	618,915	742,698			
8세	638,887	766,664			
9세	663,612	796,334			
10세	683,897	820,676			
11세	696,918	836,302			
12세	703,218	843,862			
13세	702,077	842,492			
14세	687,901	825,481			
15세	660,569	792,683			
16세	631,160	757,392			
17세	615,940	739,128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2008(통계청 홈페이지)(연령별 아동인원); 소요액수 - 보사연 추계.

내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24)</sup>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도 노동시장정책이 탈아동빈곤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sup>25)</sup> 특히, 공사적 이전소득에 비해서 가족내 생계부양자가 증가할 때 탈빈곤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sup>26)</sup>

<표 7>에 제시되었듯이 1인생계부양자와 2인생계부양 가족의 절대아동빈곤율은 각 5.6%

와 15%로 생계부양자가 가족에 1명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73.2%나 감소하고 있다. 상대아동빈곤율도 9.0%에 3.2%로 64.4%나 감소되어 가족성원의 경제활동참여,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아동빈곤을 줄이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과 함께 여성이 자녀양

24) Solera, 2003, 전게서.

25) Adema, 2005; Solera, 2003, 전게서.

26) OECD, 홈페이지, 2007.

표 7. 생계부양자 증가의 아동빈곤감소효과(2006년 현재, 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분	전체	1인생계부양자 (A)	2인생계부양자 (B)	2인생계부양 빈곤감소 효과 $[(A-B)/A \times 100]$
절대아동빈곤율	4.8	5.6	1.5	73.2
상대아동빈곤율	8.4	9.0	3.2	64.4

주: 분석에서 1인생계부양자 가족은 일반 부부+아동가족만을 포함시키고, 한부모가족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데이터』, 2006.

육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4)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드림스타트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탈아동빈곤정책에서 결핍된 것을 보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빈곤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의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탈아동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선진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 투자’ (Social Investment)의 개념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아동에 대한 총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미래에 부족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아동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인다는 전략이다.<sup>27)</sup>

이를 위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

비스의 공급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대상 아동규모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중 0~12세 아동 18만명(시설아동 2만명 제외)과 차상위가정 0~12세 아동 43만명을 포함하여 61만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희망스타트가 보완·발전되어 드림스타트로 사업화하여 전면적인 개편과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27) Esping-Andersen, 2002, 전게서.